

이원택 당선인 수사 '속도' 민선9기 최대 뇌관

식사비 대납·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끝나며 경찰 수사 속도전 공소시효 감안해 9월 말 결론 결과 따라 민선9기 초반 변수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아울러 지난 달 14일에는 식사 자리가 있었던 해당 음식점업주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정은 더욱 증폭됐고 이후 이 당선인 전 비서 등이 반박 회견을 열었지만 진실공방이 진행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과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지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경찰에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당 고발인은 이 후보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내걸린 비방 현수막과 관련, 당시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이원택 후보와 유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건도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전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감안해 늦어도 10월 2일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지방선거 당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수사속도와 항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전 수사가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될 경우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제 선거가 끝난만큼 수사 속도전에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식사비 대납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고발된 사건은 식사 대납 의혹.

지난해 11월 정읍 모 음식점에서 청년 20여명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비용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당시 동석했던 김슬지 도의원이 이를 대신 결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도의회 행사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경찰 소환 때 "이 사건은 진술을 조작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기획된 사건이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기초의원 등 일부 참석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지사였던 김 후보가 도청 폐쇄, 준예산 편성 등을 시행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2차 종합특검은 김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선거당시 이 당선인측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대리운전비 현금 살포를 당내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관련자들



고향사랑기부금 도민 체감사업으로 전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지·안전·문화 분야 기부사업 8건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도민 체감 복지·안전·문화사업에 푼다

도 직접사업 가운데 지정기부사업으로 ▲전북대표도서관 개관에 맞춰 도서 구입·전시하는 '내 고향 서가 채우기' ▲장애·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신규 가정위탁 가정에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내 고향 서가 채우기 사업은 2028년 개관 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에 권당 2만 원 상당의 도서 2,500권을 비치하는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 나눔사업으로 추진된다. 장애·고령 보훈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2027년 신규 위탁가정 70세대를 대상으

로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일반기부사업으로는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청소년 상담공간 조성사업과 고희운 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고희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시·군 공모사업 3건도 함께 선정됐다. 익산시는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5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CCTV와 SOS 비상버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와 장수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병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 공공이동서비스 전용차량을 각각 2대씩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앞으로도 도 직접사업과 시·군 공모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200조 AI·반도체' 공약 도정 출범도 전에 좌초 위기

반도체 패키징 광주전남 유력설에 핵심 투자전제 흔들려 공약 수정론 200조 중 100조 조정론까지 거론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200조 AI·반도체산업 육성이 민선 9기 도정 출범전부터 공소시효 논란속에 좌초위기에 놓였다.

16일 도지사 인수위원회와 정계계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새만금에 300만평 규모 AI 반도체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를 제1선으로 공약하고 나서며 표심을 공략했다.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가 광주 전남특별시로 들어설 가능성이 일면서 이 당선인의 공약 실현성 여부에 강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실상 7월 1일 도정 출범 전부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공장 공약에 대한 조정여부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인수위원회 신형식 위원장은 15일

도청 간담회를 통해 "이 당선인의 200조 반도체 공약은 광주 전남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후공정 공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 반도체 공약을 일부 털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해당 특위 위원장과 반도체 전문가들이 200조 원 가운데 반도체 공장 이전과 관련된 100조 원가량을 털어내고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이 광주 전남의 첨단 3지구로 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실제 선거 막판 제시된 이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었는지, 정보 부족이었는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당선인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기업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에서는 단순한 공장 유치 문제를 넘어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정청래 거취李大통령 귀국 후 결판

한민수 '순방 중엔 입장 표명 없다' '우리당은 제명하는 국힘과 달라' 정 대표 전대출마 가능성 시사

'정권은 짧다'며 청와대와 대결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진퇴 여부 등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정 대표의 거취'와 관련 "순방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 귀국 후에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전당대회 연임이라 할지 출마라 할지 거취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대통령님이 이번 주 순방이시잖나. 그 순방이 아마 18일에 늦게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의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잖나라는 질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대표님 의중을 봐야 되니까. 그동안 각자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이나 지도자들도 각자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종결정은 당대표께서 하시실 것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직답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총리님께서도 사의를 표명하신 상태이니까 당으로 돌아오신다면 8월 전대에 출마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겠나"라며 정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전혀 다르다. 마음에 안 들면 제명하고 정치적 생명 끊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러잖나"며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이 끝나서 결론이 나면 당정청 윈윈 원보이스로 같이 간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을 빗대어 이대통령이 정대표의 출마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순창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道, 청년농 영농자금 '숨통 틴워'...용자 지원 확대

개인용자한도 1억→2억원 상향 상환유예 늘려 초기 부담 완화 6월 말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

전북도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림수산물전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도 완화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 용자 한도를

높이고, 상환 기간을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농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운영자금 용자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2년 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2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농들은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생산·유통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농을 시작한 뒤 3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금에 연간 1억 원 이상 출연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이다. 현재 해당 시·군은 정읍·남원·김제·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곳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은 올해 농림수산물전기금 제5차 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오는 6월 말 신청·접수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들이 영농 초기 겪는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상환 조건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종복 의원,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민주당 당선인 41명 추대 선출 원내 운영 4대 핵심 약속 제시 "소통·협치 원내 운영 이끌 것"



정종복 의원

정종복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지방자치의 전환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장원

국 전 원내대표의 성과를 이어받아 소통과 협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원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전

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원내 운영 4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과 공평·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 구현 ▲제정정의-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재배치 ▲K-컬처 분향 육성-전북의 문화·역사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당론 추진, ▲미래 첨단 신산업 견인-피지컬 시 및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 및 미래첨단산업

유치·육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북도정과의 관계에 대해 "협조할 것은 전폭적으로 돕되, 잘못된 방향은 강력히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의회 본연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여름철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중 관리 도·시군 보건소 24시간 비상체계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홍보 강화

전북도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장마, 휴가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집단발생 우려가 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와 해외유입감염병 차단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4개 시군 보건소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감염병 집단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식중독 사고를 가정한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배달전문 음식점과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유입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 방

지를 위한 감시와 홍보도 강화한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홍역, 뎅기열 등 해외유입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사전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착용 등 개인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에볼라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서도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해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외유입감염병의 경우 국내 전파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발열, 발진,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또는 1339에 상담·신고해 줄 것



<사진=전북도>

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WHO의 2030바이러스 감염 퇴치 목표에 맞춰 지난2024년부터 14개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대상 선별검사 ▲양성자 확인 검사비 지원 ▲미치료자 추적관리 및 치료 연계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와 휴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식품 섭취 및 해외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운영난 어린이집 법인 해산·목적전환 특례 시행

도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총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5월 12일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또 최근 24개월 평균 총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가 어린이집 법인의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김민석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일벌백계"

"시위대, 무슨 권리로 통행 막나" 체육계 출입 방해에 유감 표명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는 16일 '지방선거 잠실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정선거 인사들의 출입을 장기간 통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체육계인사)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면서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막으면 대체 어떻게 하나"라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의심 행위도 재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세차레 경고방송을 했으나 시위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권파들은 시위 현장을 찾아와 이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위는 12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체육계 인사들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막으면 대체 어떻게 하나"라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의심 행위도 재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세차레 경고방송을 했으나 시위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권파들은 시위 현장을 찾아와 이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위는 12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체육계 인사들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한병도 "후반기 법사위원장 반드시 민주당 몫"

"국정운영 위해 여당이 맡아야" 국힘 향해 국회 파행 중단 촉구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거듭 말하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에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리이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1년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영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말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 국회는 역지로

개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순반 중인 이재명 대령에 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유럽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정상외교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벨기에와 유럽연합,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한-벨기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MOU 체결,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의 무더기 지방선거 소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참정권 회복인가, 대한민국의 혼란인가"라며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질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가지 안전 수칙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교통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규정속도 준수로 과속하지 않기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출발 전 안전띠 매는 습관 들이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제12대 전주시의회 폐회

제431회 임시회끝으로 대단원 총39회 회기약1천건안건처리

제12대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후반기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반기 이기동 의장과 이병하 부의장, 후반기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중심으로 35명의 의원들이 힘과 열정을 모아 제12대 의회는 8차례의 정례회와 31번의 임시회 등 모두 39회의 회기를 소화하며 1,030건에 이르는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진=전주시의회>

특히 회기 중 진행된 418회의 5분 자유발언과 152건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전주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을 발의 및 채택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폐회식에서 남관우 의장은 "지난 4년간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들과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제12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봉사했던 뜻깊은 여정이 전주 역사에 소중한 발자취로 남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36명(지역구 32명, 비례대표 4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13대 전주시의회는 내달 1일 개원해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정소민 기자



롯데어린이집 원아들 이웃사랑 실천

플리마켓 수익금 기탁

전주시 롯데어린이집 원아들의 수익금이 지역민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삼전동 소재 롯데어린이집 원들은 부모 등과 함께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원아들과 부모들은 플리마켓 수익금 1,518,900원을 16일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윤방섭 회장에게 전달했다.

플리마켓 운영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구운 삼겹살과 무공해 상추, 딸기 등을 판매하고 편의점 코너와 게임 코너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원아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준비하고 판매에 참여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배우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어린이집은 지난 2024년부터 해마다 플리마켓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기부로 전주시복지재단 백만천사 나눔에 3년째 동참하게 됐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년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백만천사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공병 무인회수기 운영

팔복예술공장·조촌동주민센터·팔복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설치

전주시가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공병 반환 편의를 돕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

시는 팔복예술공장·조촌동주민센터·팔복동주민센터 주차장에 각각 1대씩 총 3대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지난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무인회수기의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시는 무인회수기를 시범적으로 펼칠



낮 위주로 운영한 후, 향후 시민들의 이

용 추이와 요구에 맞춰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빈용기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투입하면 병의 종류와 규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동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규격별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기가다.

단 스캐저거나 내부가 오염된 병, △재사용 표기가 없는 수입맥주병 △와인병 △페트병 등 보증금 미적용 제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전주시지역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빈용기 회수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3월과 7월, 각각 센터의 지원을 받아 덕진구 반환수집소(김동원 주차장 부지)와 완산구 반환수집소(자전거경륜장 서1문 앞)를 각각 설치해 수량제한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공병을 반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빈용기보증금제'는 제품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때 환급해 주는 제도로, 재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맥주·음료병 등에 적용된다. 병용량에 따라 100원~350원의 보증금이 환급된다.

/정소민 기자

양영환 전주시의원 전주남부권 광역교통거점 '촉구'

지역민 경제발전 그 가치 매우 '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의회 의원(사진)이 전주남부권 광역교통거점 시설 구축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 전주 남부권 광역교통거점 시설 구축 촉구는 16일 열린 전주시의



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현재 전주 남부권 광역교통

관문 요충지로 광역교통거점 시설의 중요성을 제차 강조하며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고속·시외버스 정차, 시내버스·택시·주차시설이 연계된 남부권 광역버스정류장(환승 거점) 조성 △화물터미널 및 공동물류 시설 등 물류 지원 기능 검토를 제안하고 전주시 교통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해 양영환 의원은 "현재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과 남전주IC 연결 및 대광법 개정 등에 따른 남부권은 광역교통거점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평가에 따른 경제시너지 해석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국민 "경기전·전라감영" 초대

11월까지 새로운 프로그램 이어져

전주시가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가치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경기전과 전라감영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시민 또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문화유산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다채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여진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원을 통해 역사문화 체험과 △공연 △해설 △의례 재현 등을 아우르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왕과의 산책 △수문장 교대의식 △전라관찰사의 탄생 △전라감영의 날 등 전주 대표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선보인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기전과 전라감영의 역사적 가치와 공간적 특성을 살린 주·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보다 풍성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경기전에서 조선왕조와 전주사건의 역사성을 기반 한 △교육·해설 △의례 재현 △공연 △야간 탐방이 결합된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한지를 품은 전주사과 이야기' 및 한지

인형을 활용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과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이어 오는 10월 조선왕조실록의 보존 과정을 재현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가 운영,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전 대표 프로그램인 '수문장 교대의식'이 운영된다.

더불어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는 경기전의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빛·경관 연출과 퓨전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별빛누님'이 운영되고, 매주 토요일에는 야간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경기전 곳곳을 걸으며 역

사 속 인물과 사건,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전라감영에서는 전라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통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 '전라관찰사의 탄생'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전라감영의 날'도 운영된다.

여기에 전라감영 선화당에서는 전라감무와 교방승무, 포구락, 화무 등 전라감영 교방청의 전통예술을 선보이는 '전라감영 교방무' 공연 등이 개최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영유아수족구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수족구병 예방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야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가 영유아 가정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예방 수칙 및 위생 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23주차(6월 1주차) 질병관리청 수족구병 표본감시 기준으로 전국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나타나, 최근 3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라스(엔테로바

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 무력감, 식욕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보건소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공용물품 등 소독 관리 철저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강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객 수난사고에 대비한 '2026년 수난사고 대비태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범람 등 수난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위험지역 관리와 구조장비 점검, 실전형 훈련을 중심으



로 빈틈없는 수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

로 빈틈없는 수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소방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이중저수지 구명환 78개 등 주요 수난사고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였고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119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구명조끼·수중펌프 등 6종 82점의 수난구조장비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와 함께 구조보트와 양수기 조작훈련을 실시하는 등 장비 운용 능력을 강화해 집중호우와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수난구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급류지역 구조기법과 실종자 수색기법, 침수지역 대응훈련 등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대규모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우아2동 무진장흑돈대패 착한가게 동참

전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현판식이 16일 우아2동에서 진행됐다.

그 주인공은 무진장흑돈대패(우아2동 소재)로서 착한가게에 동참하며 지역민 위한 나눔실천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착한가게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또는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운동이다.

이명숙 무진장흑돈대패 대표는 "좋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아2동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전북TP, 2분기 FGI협의체 개최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모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난 15일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2026년 2분기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협의체를 열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FGI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중소

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일환이다. FGI협의체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 및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체는 2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모니터링 결과 '주요' 단계로 분류된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원과 전북지역대학연합회 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입주기업 현황과 경영상 어려움 △산업 현안 및 건의사항 △정부 지원사업 안내 △위기대응 정책 제언 등이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인건비 상승, 노후된 설비 유지보수비용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 요인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후속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 및 기업의 업종에 맞는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지원의 확대를

요청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환 단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제시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중진공 '청렴·감사' 강화

감사 전문성 및 청렴 문화 확산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6일 전북혁신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상임감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흥범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양 기관은 감사 노하우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경합을 공유해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진공과 예방 중심 감사 협력(왼쪽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상임감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흥범 상임감사)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양 기관은 △교차·합동 감사 운영 △기밀·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AI(인공지능) 감사 역량 강화 협력 △반부패·청렴 정책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감사성과 관리, 우수사례 및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허정환 상임감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감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이상기상 선제대응... 관련 서비스 고도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 요령을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제공하는 예측·예방 중심 농업재해 대응 체계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155개 시군에 구축 완료했다. 현재는 시스템에 가입한 전국 5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 정보를 문자, 알림톡으로 제공 중이다. 2024년 9월에는 서비스를 전면 개방해 시스템 미가입 농가도 회원가입 없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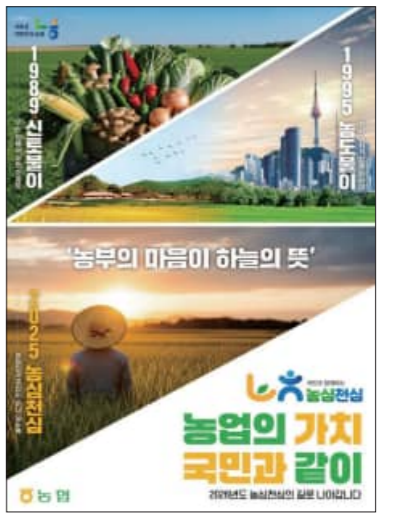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사온(ON)', 농협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도 확대했다. 올해 4월부터는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재해 담당자가 재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지도·전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계(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농업기상재해 관계 시스템'은

사방 30m 단위로 상세화한 기상재해 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약 189만 필지를 연계해 필지별 재해 위험 수준(정상·주의·경보)을 분석하고, 전국·광역 단위의 재해 위험 필지 비율을 통계화해 최대 4일 전 예보한다. 현재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개 과수 작물을 대상으로 저온해와 고온해 등 온도 관련 재해 위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 식량·채소 작물까지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풍해·수해 등 강수와 바람 관련 재해 정보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농가주부들, 농심전심 운동 확산

농산물소비촉진 구슬땀

전북농협 농가주부들이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 확산 결의대회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주부모임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은 여름철 농산물 수확에 따른 농산물소비촉진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구현에 앞장 서고 있다. 이번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은 완주 화산면에서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 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김미자 회장, 전북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 봉사단원들이 모여 '찬찬찬 반찬봉사' 결의대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진=전북농협>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이란 농업·농촌 가치 확산 위해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을 결의하며 농업인 전체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 '찬찬찬 반찬봉사'에서는 전북농협 농가주부들 구슬땀의 결실 '양파장아찌 200통'이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됐다. 농심전심(農心天心)을 앞세운 김미자 회장은 "농심전심 운동확산은 농촌 활력과 함께 위기극복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농가주부모임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농심전심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동참

박춘원 은행장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박춘원 은행장이 16일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은행장의 이번 불법도박 릴레이 동참은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위험성을 알리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참여했다.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박춘원 은행장은 핀테크 기업 핀다이해인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

인에 참여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고 가정과 사회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금융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 보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춘원 은행장은 캠페인의 취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광주은행 정일선 은행장과 전북애환운동본부 윤석정 총재를 추천했다. /정소민 기자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군산비축기지 방문

전북지방조달청 김항수 청장은 16일 오로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군산비축기지 개선품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안전점검은 장마철 기상 악화에 대비해 △공사현장 배수체계 △작업환경 △비상 연락체계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집중호우 시 배수 관리 상태와 작업장 안전조치 현황을 중점적으로

로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북지방조달청>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모두의 창업' 1기 출범

1기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연계 역량 강화

전북중기청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이 16일 개최됐다.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 지역 출범식으로 개최됐다. '모두의창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창업 오피션 프로그램이다.

특히 단계별 경쟁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두의 창업' 지원에는 전국 63,000명이 지원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종 5천명이 선발됐다. 전북지역은 2800여명이 지원해 약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308명이 선발돼 본격적인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전북지역 '모두의 창업' 1기 행사에

서는 △선정자 △책임멘토 △허브기관 △운영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행사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출범식 주인공들은 앞으로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금 △AI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308명의 창업 도전

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전북이 혁신 창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초 공모 예정인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2배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공식 홈페이지(www.modo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농식품부는 16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수당 및 예비 등 (이하 '수당' 등)을 미지급한 가축방역 기관(이하 '배치기관')에 대한 공방수 인력 감축 등이 포함됐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을 통해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또 공방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둘째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했다. 농식품부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장(구역본부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셋째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해 처우 개선 및 복부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빠니보틀·권은비, 고군산군도 매력 알려

유튜브 웹 예능서 방축도~말도~명도 섬 백패킹 매력 담아

군산시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수려한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를 대한민국 대표섬 백패킹(배낭여행 및 야영) 명소로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친환경 아웃도어 트렌드인 '백패킹'을 고군산군도의 독보적인 섬 자원과 결합해 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마케팅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디'에서 제작한 '아이디 살데 시즌 3' 군산편으로 1편은 지난 4월, 2편은 지난 11일 순차 공개됐다.

이 영상은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가수 권은비가 호스트 해 요리 전문가와 일반 여행자 6명의 게스트와 함께

하는 1박 2일 섬 백패킹 여정을 담았다. 1편에서는 장자도를 거쳐 방축도에서 본격적인 섬 트레킹과 백패킹을 시작한다.

방축도에서는 다채로운 색깔의 테트라포드와 어민들의 풍어와 무사귀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인어상을 만나볼 수 있다.

출연진은 저녁 식사를 위해 낚시팀과 해루질팀으로 나누어 놀래미를 낚고 바위에서 거북손을 직접 채취하며 자급자족의 묘미를 보여줬다.

2편에서는 방축도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낸 뒤, 직접 잡은 놀래미와 세프가 준비한 가브리살을 활용한 커리로 야영의 낭만을 이어갔다.

다음 날 배를 타고 말도에 입도해 말도 등대와 천년송, 고릴라를 담은 기암괴석 등 섬 특유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보물찾기 이벤트를 즐겼다.

이후 K-관광섬 고군산섬잇길을 따라 말도에서 보농도를 지나 명도까지 트레킹을 이어갔다. 섬과 섬을 잇는 제1교·제2교를 건너며 탁 트인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풍경을 만끽했으며, 명도에서는 구렁이전망대와 오진여전망대에 올라 고군산군도의 장엄한 해상 경관을 감상했다.

여정의 대미는 방축도에서 직접 채취한 거북손·보팔로 끓인 군산식 짬뽕밥과 명도 이장님이 건네준 싱싱한 생선회로 장식하며, 섬이 선사하는 자연의 맛을 오롯이 담아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는 고군산군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K-관광섬 고군산섬잇길 트레킹 코스를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를 통해 전국에 생생하게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K-관광섬 고군산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아이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유소년 축구 축제' 11월까지 열려

8~12세 이하 연령대 별 진행

정읍시가 지역 유소년 2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정읍시 아이리그(I-league)'를 지난 12일 개막해 오는 11월까지 상평인조구장과 풋살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정읍시는 후원을 받아 유소년 체육 발전을 돕는다. 경기는 8세 이하(U-8), 10세 이하(U-10), 12세 이하(U-12) 연령대로 나뉘어 치러진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승패나 성적에 얽매지 않는다. 아이들이 축구를 통한 스포츠를 매개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다른 팀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

하면서 끈끈한 협동심과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대회를 구성했다.

대회 기간에는 문화 축제도 함께 열린다. 참가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축구를 즐기고 밖에서는 다채로운 놀이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읍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이리그는 경쟁을 넘어 참여와 즐거움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유소년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튼튼하게 자라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회 운영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도서관, 독서문화 확산 나선다

고창군도서관이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특별전시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다.

특별전은 오는 8월까지 고창중앙도서관 지하 1층 마추침공간에서 열린다. 책 속 주요 문장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군민들이 작품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4권의 올해의 책 △제철행복(김신지) △청춘의 독서(유시민) △늘지어라(최상희) △긴긴밤(루리) 소개와 주요 문장,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아쉬운 올해의 책'도 함께 운영해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독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오는 21일 오후 2시 고창중앙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일반문학 분야 선정도서 '제철행복'의 저자 김신지 작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독서릴레이 프로그램(함께 이어가는 책 읽는 고창)과 직장내 책 읽는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책으로 있는 부서 독서릴레이)을 운영해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고창군립도서관장은 "이번 특별전시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올해의 책을 더욱 친근하게 만나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인수위, 공약과제 설명회 개최

99개 세부 과제 운곽 교육기본수당 등 추진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간부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약과제 설명회를 열고, 학생 복지 확대와 교권 보호를 골자로 한 99개 세부 과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16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별관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과 인수위원 12명, 전문위원 59명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각 부서 팀장 및 지역교육지원청 과장 이상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과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개최 및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교육감 당선인의 인사가 이어졌으며, 이후 박일관 인수위원이 1시간에 걸쳐 세부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인수위는 새 교육청의 정책을 △교육회복 △더불어성장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 △따뜻한 포용 △미래를 향한 도전 등 5대 비전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복지 영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수당 지급과 학생 통학비 전액 지원(버스비 무상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 유아교육을 3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민원 상담 전용 공간인

'존중 공간'을 설치하고, 시·도교육감 연대를 통해 교원 소송의 국가(교육감) 책임제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경력 교사를 위한 안식년제 도입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장 선출보직제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교육과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형 AI 기반 공공학습플랫폼'을 구축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진단과 학습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피지컬 AI교육 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지역 신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폰 프리학교 시범 운영도 세부 과제로 검토 중이다.

행정과 감사 부문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내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청탁이나 계약 비리 적발 시

즉각 퇴출하는 '부패 무관용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공약과제 설명회 일정을 마친 뒤 당선인실에서 교육감 및 직속기관장과의 차담회를 열고 현장의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부안농악 명인 나금추 선생 8주기 추모제

부안농악 전통가치 알려

부안군은 부안농악의 정승과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나금추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나금추 선생 8주기 추모제 '금추문화제'가 지난 13일 매장테마공원 광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7-1호 부안농악 상쇠 예능보유자이자 부안군립농악단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한 나금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부안농악의 전통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농악보존회와 전통예술원 타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합동성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매장테마공원 광장에서 추모공연과 사진전이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나금추 선생의 생전 활동 모습과 부안농악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선생의 삶과 예술세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 나금추 선생의 제자들이 마련한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은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기무를 비롯해 성악과 국악이 어우러진 협연 무대, 부안농악보존회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자들은 각자의 예술세계를 통해 스승의 가르침과 예술혼을 기리며 뜻깊은 무대를 선보였다.

부안농악보존회 관계자는 "나금추 선생은 부안농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지역 전통 예술계의 큰 스승"이라며 "이번 추모제가 선생의 예술

정신을 되새기고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금추 선생은 1938년 태어나 16세에 국극단 활동을 계기로 농악의 길에 들어섰으며 춘향여성농악단 상쇠를 시작으로 수많은 여성농악단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쇠로 명성을 쌓았다.

1976년 전북농악경연대회 개인 연기상, 1983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수상에 이어 19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이리농악단 상쇠로 참가해 개인 연기상과 단체 대통령상 수상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은퇴 후에는 부안에 정착해 전국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부안농악의 정승과 발전에 헌신했고 2018년 6월 별세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도 관광굿즈 공모 선정 10개사,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16일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굿즈 공모' 최종 선정기업 10개사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전북만의 특화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재단과 선정 기업 간의 성실한 사업 이행과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정된 10개사는 지난 3월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전시심사, 서류 심의와 발표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선정된 기업은 △더싱킹 △드림해븐 앤드립스카이 △서학아트스페이스 △스튜디오볼트 △주식회사 아트뮤 △오하이데이 △유한회사 감성아트 △제이지 몰산 주식회사 △트리스쿨 주식회사 △하시스 (이상 가나다 순) 등

총 10곳이다.

최종 선정된 관광굿즈는 브랜드 집중 홍보 및 판로 체계화를 위해 센터가 주관·운영하는 팝업스토어 및 트래블 라운지 등 공식 온·오프라인 지정 채널을 통해 독점 판매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tourbiz.jbct.or.kr) 또는 센터 (063-230-42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길 기자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26년 6월8일(월) ~ 7월9일(목)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	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기타 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 · (주)전북타임스신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읍시, 20일 '돈쫄남' 김경필 작가 초청 경제 특강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의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연지아트홀에서 베스트셀러 '딱 1억만 모읍시다'의 저자 김경필 작가 초청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딱 1억만 모읍시다 : 돈쫄남는 경제 잔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 작가는 행사 현장에서 바랍직한 소비 습관과 효과적인 자산 증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비결을 공유한다.

김 작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삼성그룹과 미래에셋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재무 관리(테크) 분야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대중에게는 '돈으로 혼쫄내는 남자(돈쫄남)'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방송과 유튜브 등을 오가며 올바른 지출 통제와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경제 조언자(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딱 1억만 모읍시다',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오늘은 잔테크 내일은 플렉스'가 있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시민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새벽시간 표류 레저보트 구조... 인명피해 없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16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항 서방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군산 비응항 서방 약 10km 해상에서 고무보트 운항자가 "엔진이 고장 나 운항이 어렵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탑승자 2명의 안전상태를 확인했으며, 확인결과 레저보트 엔진의 고장 상황 외 안전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트는 전날 오후 비응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하던 중 엔진이 고장 나 표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탑승자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장난 레저보트를 비응항 계류장까지 예인했으며, 오전 5시 32분께 모든 안전 조치를 마무리했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레저기구 이용 전에는 엔진 상태와 연료량을 반드시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관내 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의집' 운영·안전 점검

정읍시가 지난 15일 관내 정신재활시설인 '마음사랑의집'을 대상으로 투명한 운영 관리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폭염, 풍수해 같은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위치한 샘골복지재단 소속 '마음사랑의집' 1곳이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 샘골건강센터 마음건강팀장을 반장으로 삼아 시설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등 총 3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전반을 살폈다.

점검반은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법적 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와 인력 관리 현황을 들여다봤다. 순회경 시 보건소장은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장직 인수위, 7대 대전환 밑그림

최정호 당선인 "시민과 약속이 최우선,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민선 9기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전병훈)가 청년시청에서 지난 15일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 관련 국·소·단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전략, 청년

도약 등 4개 분과별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및 재정 확보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인수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업별 적정 재원 확보 방안, 법적·제도적 걸림돌 유무, 기대 효과 등을 시청 실무 부서장들과 치열하게 토론했으며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익산시장직인수위원회 전병훈 인수위원장은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한 약속인 만큼, 단 하나의 공약도 누수 없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행정을 통한 공약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동안 다듬어진 공약들을 바탕으로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로드맵을 조속히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추가 공약 및 시민정책 제안 등을 다음 주 중에 추가로 논의해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력을 면밀히 따진 뒤, 민선 9기 익산시장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최종 활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정읍, 주민자치·사업장 역량강화 2(題)

익산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선진 지역의 우수사례를 배우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등을 방문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오는 10월 예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에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과 회장 등 25여 명이 참여해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와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살펴봤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역으로, 참석자들은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의춘 센터장으로부터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철 회장은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선진 사례를 직접 배우고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배운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정읍시가 민간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다지고 현장 재해를 막고자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제1차 찾아가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관리 역량을 키워 불의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단에는 신상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이 올랐다.

그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울러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되는 위험성 평가 실행 방안을 깊이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교육이 끝난 뒤 진행한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과정을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행복한 정읍시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교육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재해 예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취업박람회' 23일 개최

16개 기업 현장 면접...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정읍시가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지역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 정읍체육관에서 '2026 상반기 정읍시 취업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채용, 홍보, 체험 등 세 가지 구역, 29개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채용 구역에서는 16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구직자는 실질적인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홍보 구역에는 3개 공공기관과 5개 관련 기관이 자리한다. 이들은 방문객에게 유용한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전북은행, NH농협은행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끈다. 각 기관 담당자는 최근 채용 동향, 전형 절차, 바라는 인재상 등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구직자의 경쟁력을 높여줄 체험 구역도 다채롭게 꾸려진다. 증명사진 촬영을 비롯해 머리 모양 상담, 개인 맞춤 색상 진단 프로그램이 마련돼 취업 준비생들의 자신감 향상을 이끈다.

또한 시는 구직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면접 참여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지역 대표 일자리 행사"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고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업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이력서를 챙겨 정읍체육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나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11월까지 5개 도서관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립도서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인문학적 즐거움을 더한다.

익산시는 모현·마동·부송·금마·황등도서관이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다.

지역도서관을 통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진행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익산시립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각 도서관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현도서관은 '미(美)완성 인문학: 나를 살리는 밥상공부'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건강한 식생활의 의미를 살펴본다.

마동도서관은 '풍수지리와 한의학으로 만나는 인문학'을 운영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부송도서관은 '꽃보다 나, 꽃으로 배우는 마음 인문학'을 통해 원예와 예술을 매개로 자아를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마도서관은 '영화로 읽는 세계문학'을 주제로 고전 문학 원작 영화를 통해 문학과 예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황등도서관은 '순글씨로 담아내는 문학, 내 삶을 바꾼 한 문장'을 운영해 문학 작품 속 인상 깊은 문장을 순글씨로 표현하며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즐거움을 발견하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 인문학 거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류 이동 병원' 운영

고수온 피해 선제 대응

정읍시가 예년보다 빠른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 생물 폐사를 막기 위해 16일 관내 90여 개 어가를 직접 방문하는 '이동 병원 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연안 수온은 지난해보다 1℃ 이상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수온 상승 속도도 빨라 고수온 특보가 일찍 내려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식 생물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는 양식 산업의 최대 위협인 고수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협력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꾸려진 진료반이 현장에 투입돼 어류 질병을 확인하고 처방을 내렸다.

감염이 의심되는 어류는 더욱

꼼꼼한 정밀 검사를 거쳤다.

이번 현장 지원은 양식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초기 진단에 집중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생충 구제 약품과 방역 예찰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올바른 수산물 의약품 사용법과 어장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또 현장 상담을 진행해 어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강원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마다 수온 상승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양식장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어류 병원을 운영해 면역력을 키우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뮤지컬 '할머니의 여름휴가' 공연

27·28일 막 올려

군산예술의전당이 부드러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가족뮤지컬 '할머니의 여름 휴가'를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가족뮤지컬 '할머니의 여름휴가'는 인기 동화작가 안녕달의 국내 13만부 이상 판매되고 대만 프랑스 등에 수출돼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공연은 무대와 객석을 잇는 영상 연출을 통해 관객을 '바닷속'으로 초대하며 6M 대왕고래가 객석 위로 헤엄치고 물개, 갈매기, 인어등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공연장 안을 생생한 판타지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사진=군산시>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3중계펌프장, 주민 쉼터로 탈바꿈

주민 의견 반영 시설 개선

익산시가 3중계펌프장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는 3중계펌프장 내 주민친화형 소공원 시설 개선과 함께 여름철 악취 관리에도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탈취시설 확충과 시설 밀폐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단계적인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유희부지를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설치된 주민 의견 게시판에는 시설 이용과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충 퇴치기를 추가 설치하고 다양한 차를 비치하는 등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하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악취 발생에 대비해 오는 7월부터 10월 까지 악취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순찰과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3중계펌프장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환경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취 저감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저경력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학교 현장 적응력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은 지난 15일, 고창일원에 서 3년 미만 저경력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 '넥스트레벨' 및 '디딤돌'회원을 대상으로 연합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저경력 지방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 전문성 향상과 지역문화 이해를 통한 성장'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물품·

재산 업무를 중심으로 직무연수가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고창남초등학교를 방문해 물품 관리와 재산 업무 처리 절차, 실제 업무 사례 및 주요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의를 들으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영란 행정지원과장은 "저경력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고창군 '소통·정책기획위원회' 출범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23명 위촉... "군민 소통 최우선"

고창군이 민선9기 군정의 뼈대를 세울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한 고창의 대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고창군은 16일 '민선9기 고창군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책기획, 농림해양, 문화관광, 사회복지, 공동체, 청년, 지방소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23은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고창군의 보물(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 예고중)과 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총 개수다.

수백, 수천년을 지나 현재의 고창군에게 많은 가르침과 영감, 자부심을 전해온 국가유산처럼, 위원회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새겨 미래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민선 9기의 포부를 담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한 달간의 임기 동안 주 2회씩 회의를 거쳐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선9기 슬로건과 군정목표 등을 함께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군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덕섭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수렴한 소중한 군민의 의견과 정책들을 행정의 눈이 아닌 군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듬는 사전 준비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공약을 다듬어내면 이를 바탕으로 민선9기 공약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소통·정책기획위원회는 민선9기 고창 군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모두가 소통하며 하나 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개최

9대 마지막 회기 운영... 조례안 등 심의의결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6일 제3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부안군의회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와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 결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부안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부안군의회는 16일 제3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부안군>

끝까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실히 심의하고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복분자 수매현장 점검

농업인 격려 및 안정적 수매체계 구축

고창군이 본격적인 복분자 수확철을 맞아 수매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수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흥덕농협과 선운산농협 복분자 수매장을 찾아 수매 현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복분자 수확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원활한 수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무더위 속에서 수확과 출하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하약정 체계 구축, 등급별 수매제 시행 등 수매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수매체계를 구축해 고창산 복분자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원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군 농어촌산업국장은 "올해는 수매체계 개편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복분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전국 최대 복분자 주산지로서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창 복분자의 명품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고령층 디지털학습문턱 낮춘다

(주)KTCS와 AI·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 추진

김제시는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만경읍 토정경로당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읍·면 지역 경로당 50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내 고령층·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기술과 건강을 테마로 △디지털 키오스크 인지도 검사 △AI 눈 건강 체크 △스트레스 진단 △VR 체험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KTCS 소속 전문 디지털 튜터 4명이 에듀버스로 읍·면 마을을 순회하며

회차당 15명 내외의 소규모 밀착교육을 진행해, 이공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경로당에서 최신 AI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가족과(평생교육팀)와 건강증진과가 부서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이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교육가족과는 사업 총괄·교육계획 수립·홍보·행정지원을 담당하고, 건강증진과는 기존에 운영 중인 '건강배세체조교실' 네트워크를 통해 방문 대상 경로당 연계 협조를 맡는다.

단순한 디지털 수업을 넘어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을 교육 콘텐츠와 융합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2025년 기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층은 71.8%로 더 낮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인구 비율

(65세 이상 30% 초과)를 기록 중인 김제시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다.

주목할 점은 시가 (주)KTC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문 디지털 튜터 감사비, 찾아가는 에듀버스 운영 및 최신 디지털·AI 교육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총 6천5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지역 민관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은 예산 없이도 민·관이 협력해 전문적인 디지털·AI 교육을 농촌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과 디지털을 잇는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민 삶과 일상에 디지털·AI 기술을 더욱 친숙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심화교육 교육생 모집

26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 심화교육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역량과 농업경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내달 2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총 8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경영 및 마케팅, 세무·법률교육 등 귀농 정착 단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fbwidnjs7825@korea.kr)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며, 해당자에 한해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이 농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김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영농현장 방문... 작물 생육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부안군 동진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영농현장을 방문해 모심기, 논콩 및 이모작 작물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정에 동진면장은 관내 모심기 및 이모작 작물인 보리, 밀의 수확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일손을 거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정에 면장은 "계속되는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관리의 어려움에도 열심히 땀 흘리는 농가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농작업시 농기계 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고용지원협의회체 위촉식 지역 고용거버넌스 강화

김제시는 16일 지역 고용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고용지원협의회' 위촉식을 지평신문화축제발전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현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일자리 유관기관, 대학,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제일자리센터 운영방안 보고 및 질의응답,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용지원협의회'는 김제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기관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일자리 분야 현안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고용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과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시는 앞으로 '고용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고용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용지원협의회가 지역의 다양한 고용 주체들을 연결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제주 대정농협, 농산물 판촉행사

고창 수박 직거래 판매

고창군과 제주 대정농협이 지난 12~14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고창 수박 직거래 판매행사를 열었다.

고창군,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정농협이 함께 개최한 직거래 판매행사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을 중심으로 고창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됐다.

고창수박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재배돼

높은 당도와 식감이 특징이며 지리적 표시인증을 받을 정도로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고창수박을 구매한 소비자는 "매년 수박, 멜론, 고구마 등 고창의 우수 농산물이 이곳 제주도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하다. 다양한 고창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고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효율적인 농지관리 기대

김제시는 읍·면·동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1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향상과 농지대장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및 시스템 활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문성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농지법 실무

관련 이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및 조사 체계 △농지대장 업무지침 △농지 전수조사 기본 조사 방법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및 조사 결과 입력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를 실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농지 전수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농지 정보 관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농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추가 지원

안전사고 예방 총력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은 지난 1차 신청을 통해 관내 농업기계 17대에 등화장치를 지원한 후 농가들의 추가 지원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해 등화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장치는 야간이나 안개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농기계의 위치를 명확히 알려주는 야간반사판,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으로 총 3개 품목이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 후 전문 업체가 직접 부착 작업을 진행하므로 고령의 농업인들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국비 확보 나서

취임 전 예산 확보 선제적 행보
기재부·농식품부 잇따라 방문
2027년 정부예산 반영 협조 요청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양 당선인은 16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을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부처 대응에 나선 것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시장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이날 양 당선인은 기획예산처 예산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00억



양충모 당선인과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 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640억 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80억 원), △국립판소리 산업 복합단지 조성(490억 원), △입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242억 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1,170억 원) 등 핵심 사업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사매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하드웨어를 문화, 의료, 교육 등 프

로그래프와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2단계 공모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양충모 당선인은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과 예산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핵심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 이웃나눔 실천 '사랑 드림미' 모내기 진행

주민·사회단체 100여명 참여
군수 직접 이앙기 몰며 힘보태

완주군 삼례읍이 지난 15일 삼례읍 행복복지센터 일원에서 제3회 삼례읍 사랑 드림미(米)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삼례읍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삼례농협, 삼례면회 등 6개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유희태 완주군수는 직접 이앙기를 몰아 모내기 작업을 수행하며 행사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다. 군수와 주민들이 함께 일손을 돕고 힘을 합친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사랑 드림미 쌀 나눔 사업은 올해 총 3,600평 규모의 농지를 이어 경작한다. 이번엔 심은 벼는 연말에 수확해 홀몸 어르신 세대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세대 등 다양한 소외 계층에 전달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 심은 벼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까지 풍족하게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도내 3위 '역대 최고'

군단위 1위 첫 상위권 진입 쾌거
평가체계 정비·부서 협업 결실

순창군이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종순위 도내 3위,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도내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도내 최종 종합 순위 평가에서 낮은 순위에 머물렀던 순창군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순창군은 매년 정량지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시 단위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인 정성지표 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종 평가에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무르는 아쉬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2025년 초부터 합동평가

추진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64개 정량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수·부군수 주재로 부서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우수 추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직원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정성평가 분야에서도 군정 전반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완성도 높은 보고서 작성에 힘쓴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정성평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며 최종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노력도 분야에서는 기존 간접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만점을 획득했다. 이처럼 정량·정성·노력도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전년 대비 총점이

크게 상승했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내 종합평가에서 목표했던 중상위권을 넘어 도내 3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달성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좋은 성적으로 순창군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군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연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합동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머리끝까지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국정·도정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표적인 평가제도도 활용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접수

순창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 등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풍산면 금동로 1013)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심사는 7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순창으로 전입신고한 만 6년 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등이며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은 금융자금 융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대기·폐수 사업장 점검...환경 관리 강화

완주군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전개하며 환경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114개소로, 완주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차장과 차량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 내용으로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비롯해, 환경기술인의 필수 교

육 이수 여부, 운영일지 작성 실태 등 환경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도를 병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 내용으로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비롯해, 환경기술인의 필수 교

남원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개최

남원시는 1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제46회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는 올해 새로 도입한 '신

나는 예술버스 공연'과 장애인들의 자기자랑이 이어졌다.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가 주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남원시립조합(조합장 허운영)에서 후원금 5백만원, 더조은위대(대표 이지호)에서 생수 2천개 등 지역사회의 기부가 더해졌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농공단지 기업 물류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입주 제조기업 경영부담 완화
물류비 50%지원 24일까지 신청

순창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와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날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 경영환경

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물류비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이다.

다만 비제조업체,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신청 기간은 6월 2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 /순창=박지현 기자

도미니카, 완주 농촌형 여성창업 모델 벤치마킹

도미니카공화국 연수단 방문
지역자원 활용 창업모델 큰 관심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형 여성창업 지원 모델이 해외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직무 연수단은 지난 12일 농촌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우수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완주여성새일센터를 찾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도미니카공화국 공무원 10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농촌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완주군의 지역 자원 기반 가공 창업과 여성 창업 공동체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현지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날 완주새일센터는 연수단을 대상으로 센터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취·창업 연계 모델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센터 내에 마련한 새일 창업 작품 전시를 통해 2024년 업사이클링 자이언트 플라워 공동체 창업 과정인 '숲 이야기'와 2025년 의류 업사이클링 디자인 공동체 창업 과정인 'W(더블유)'의 성과를 소개해 연수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지난 2022년 로컬 꽃차 전문가 창업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모델 기업인 '꽃담길(봉동읍 소재)'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견학했다. 이 자리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연수단은 완주군의 농촌형 맞춤형 지역 자원 연결 방식과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 발굴 과정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며 깊은 관



<사진=완주군>

심을 보였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도미니카공화국 연수단의 방문은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형 여성 창업 공동체 모델과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청아원 상주 예술단체 청년춘향·흥부전 소재 '연희꽃' 공연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과 지역 청년 예술인 단체 (유)청연이 오는 20일 오후 5시 청아원에서 공연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희꽃'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아원 상주단체로 선정된 (유)청연의 올해 첫 번째 공연이다.

청연은 이번 공연에서 퓨전국악밴드 'PLAY가온'을 초청해 전통연희와 퓨전국악의 매력을 한 무대에 담아낼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 중 '국악이 들려주는 남원 이야기'는 남원의 대표 문화자원인 춘향전과 흥부전을 소재로 구성된 무대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공연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청연은 이번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레퍼토리 공연 2편과 창작 초연작품 1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희꽃'은 그 첫 번째 무대로 오는 7월 또 다른 우수 레퍼토리 공연에 이어, 11월에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규 창작 초연작품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연희꽃'은 전석 무료 공연으로, 온라인 예매처인 나루터컬처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소방서, 최근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전환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조치 출동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인 14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완주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완주군 평균 강수량은 약 10mm를 기록했으며, 소양면과 용진읍에는 약 20mm의 비가 내리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이날 집중호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도로변 수목이 쓰러지고 건축물 지붕 일부가 탈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완주소방서는 총 7건의 풍수해 관련 안전조치 출동을 실시했다. 완주소방서는 기상특보 발효에 맞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상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주소방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예찰 및 긴급출동체계를 유지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완주서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는 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풍수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시작

남원시가 직영하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이 지난 1일부터 물리치료실 운영을 시작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신체 기능 유지 지원에 나섰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통과 관절통,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을 마련했다. 특히 복지관 내 건강상담과 물리치료를 연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이며, 현장접수와 예약제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관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축척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축척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치료 적합 여부를 판단한 뒤 진료기록지를 발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척의 방문 진료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회 운영되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장수군, 오페라를 쉽고 친근하게 슬림 오페라 '미술피리' 공연

장수군은 17일 오후 7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술담은나라'의 세 번째 공연인 슬림 오페라 '미술피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대표 고전 오페라 '미술피리'를 지역민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리아 솔로와 중창 중심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바다와 낮으로 상징되는 이성과 감성의 대립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여러 시합을 거치며 사랑을 이뤄가는 흥미로운 줄거리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제한된 공연 환경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슬림 오페라' 형태로 기획됐다.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하면서 현대적 해설과 관객 소통형 연출을 더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편안하게 오감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운암면 새마을부녀회, 여름 맞이 김치 나눔 행사

임실군 운암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임)가 본격적인 무더위 여름철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운암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13일,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 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차이는 물가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 정성껏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통당 3kg)는 도읍의 손길이 시급한 관내 소외계층 100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총력 대응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주요 계곡, 하천 등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은 행정기관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로 구성됐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동안 위험지역 예찰활동과 안전시설 점검, 안전수칙 홍보, 긴급상황 대응 등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와 바탕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시설물 일체 정비 △안전요원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대국민 안전캠페인 및 구명조끼 무료 대여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청년 농업인, 군 복무 대신 영농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의 동력이 될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선발해 군 복무 대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또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2027년도 사업 신청 희망자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무주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와 아간학과 재학생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달 2일까지

영농 정착 예정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정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로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력·교육·영농기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영농계획과 영농기반,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추천할 예정으로, 최종 편입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확정해 올해 12월경 통보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종 점검

전 군민 의견 담아 투자계획 완성도 높여

장수군은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최종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이정우 부군수, 류지봉 행정복지국장, 황현철 농산업건설국장,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즐거운도시연구소가 투자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수군은 '제2차 장수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해 왔다.

군은 한 달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교육·귀농·귀촌·지역경제·복지 분야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투자계획에 반영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모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추진

임실군이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하반기 시설원예와 동절기 재배작물의 수확 시기에 맞춰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영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은 접수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

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임실군은 올해 상반기 추진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현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총 356명 중 2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했다.

이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은 소규모 농가에 배치되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 직접 배치형 234명은 지역 농업현장에서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의 핵심은 작업 강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와 겨울철 재배작물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영했다. 아울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을 추진했으며, 부서별 검토회의와 사업 발굴 보고회, 전문가 자문, 전북특별자치도 및 행정안전부 컨설팅 등을 거쳐 투자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왔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의 해답은 현장과 군민에게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더욱 꼼꼼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전북 도시재생 상생 포럼 개최

도시재생 발전 방향 모색

임실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오수창의키움공작소 공연장과 오수지구 일원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상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재생 전문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첫날에는 임실군 도시재생 추진현황 및 주요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국내

의 전문가들이도시재생을 통한 전북지역 균형발전 및 해외 도시재생 사례와 전북지역 적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실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 도시재생의 미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실현' 기반 다진다!

부남·설천·적상면지사협 활동논길

무주군에서는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선도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정을 나르는 행복 밥차'에 함께 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주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으로 맞춤형 복지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군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9일 혼자 거주하다가 사망한 기초생활수급 주민의 유류품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주군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으로 '톡톡, 안녕하십니까?'를 매주 2회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 외에도 연료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위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스트림 이불 빨래 서비스 사업(세탁·건조)'을 5년 연속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공직자 6명, 장학금 600만원 기탁

사무관 승진 기쁨 나눔으로 이어가

(재)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은 올해 1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군 간부 공무원 6명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지난 15일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에는 조윤경 재무과장, 정병인 물관리과장, 양은석 환경과장, 이영숙 의로지원과장, 서윤정 의회사무과장, 김강수 의회 수석전

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 생활의 중요한 이정표인 사무관 승진의 기쁨을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

고자 자발적으로 기탁을 결심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확실히된 학력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고, 스스로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다원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자들은 "장수군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가뭄 대응 농업현장 점검 나서

진안군은 최근 20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바 '마른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뭄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16일 상전면·백운면·마령면 일원의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물 생육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추와 수박, 고구마 등 주요 작물이 생육기에 접어들고 모내기 이후 논 물관리가 중요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선제적인 가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가뭄에 취약한 작물 재배지를 직접 찾아 작물 생육 상태를 살피고, 농업용 관정과 양수장, 급수시설 등의 가뭄 현황과 물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가뭄 대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진안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급수 장비와 양수기 지원, 예비 급수 대책 마련 등 농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김제휴게소서 '장수 가야' 특별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1,500년 전 장수가야 문화

장수군은 1,500년 전 고대 장수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 2층 전망대에서 내달 9일까지 '2026 박물관 IN 휴게소 -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 가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도내 주요 박물관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박물관 IN 휴게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박물관미술관 협의회와 도내 9개 박물관이 함께 참여한다.

전시 주제인 장수가야는 고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세력으로, 뛰어난 철기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봉화유적과 다수 고분군을 남긴 전북 동부권 대표 역사문화유산이다.



장수군은 김제휴게소 2층 전망대에서 7월 9일까지 '2026 박물관 IN 휴게소-백두대간을 품은 장수 가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장수역사전시관은 김제휴게소 2층 전망대 공간을 활용해 장수가야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철기문화와 독창적인 토기 문화를 시각자료와 소장품 중심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탁 트인 김제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휴게소 전망대에서 장수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장수군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

부는 특별전과 연계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운영한다.

김제휴게소 특별전 관람 후 인증사진을 촬영해 장수역사전시관에 방문·제시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반대로 장수역사전시관 방문 인증사진을 촬영한 관람객이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면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 화산면 부녀회원들, 로컬 농산물 감자 나눔

완주군 화산면이 지난 15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 농산물인 감자를 나누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화산 더 나눔 5'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은아 새마을지도자 화산면 부녀회장이 정성껏 직접 재배한 감자를 기부하면서 마련됐다. 화산면부녀회원들은 화산면 직원들과 감자를 수확하고 포장하는 전 과정에 동참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자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화산면 부녀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 화산 더 나눔 5' 행사는 화산면의 대표 로컬 농산물인 감자, 양파, 대파 등 5가지의 품목을 직접 재배한 면민들의 기부를 모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다. /완주=김명곤 기자



MG지리산새마을금고, 행사장에서 생수 무료 나눔

MG지리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3일 인월시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제30회 인월제 및 제29회 인월면민의 날 행사'에 전 직원이 참여해 '시원한 생수 무료 나눔터'를 운영하며 지역민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MG지리산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펼쳤다. 생수 나눔터는 많은 이용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보여주었다.

한편, MG지리산새마을금고는 인월면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아영면에 아영지점과 남원시청 앞 시청로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행사와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협, 어르신 위안잔치 개최

지역 어르신들과 정 나뉘는 나뉘는 공연 펼쳐

바르게살기운동남원시협의회(회장 조태봉)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남원노안초등학교 대강당에서 '2026년 효(孝) 어르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lobal Korea 국민운동-국민과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성용경 바르게살기운동남원시협의회 고문을 비롯해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한명숙·오창숙 남원시의원, 노현이·전인숙 남원시의원 당선자, 이은주 남원시 행정지원과장, 진중훈 노안동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오재명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식전행사로 금동나타공연단의 합창 난타공연과 남원시생활체육회 김미숙 회장의 댄스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성껏 마련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



난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고 답소를 이어가는 등 행사장 곳곳에서 따뜻한 정이 넘쳐났다. /남원=김종원 기자



롯데몰 군산점 사룻데봉사단, 드림스타트 아동에 이불 후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16일 군산시 드림스타트 4층 프로그램실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여름 이불 지원 기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지원은 무더운 여름철 취약계층 아동가정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롯데몰 군산점(점장 이성규)과 사룻데봉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탁된 여름 이불은 총 13채(일백만원 상당)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가정 13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폭염에 취약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롯데몰 군산점 사룻데봉사단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밑반찬지원, 운동화지원, 여름겨울나기 지원 등 꾸준히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 여성단체협의회, 축제 수익금으로 장학금 전달

학생들의 도전·성장 지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양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290만 6040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5월 열린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동안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스크림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

를 응원하는 뜻을 담아 전달됐다.

협의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양순 회장은 "회원들이 축제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이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정읍 낙농협회, 공유냉장고에 매주 우유 기탁

정읍시 낙농협회(회장 이민환)가 지역 내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덕천면 공유냉장고에 매주 월요일마다 우유 25개를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이민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나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된다. 공유냉장고는 주민끼리 자발적으로 남는 식품을 나누고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된 공간이다.

이민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어부바봉사단, 취약계층에 도시락 배달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6일,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신은학)과 함께 6월 마을공동체 밥상 열무김치 도시락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밥상 사업"은 매월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6월 마을공동체 밥상 열무김치 도시락 500개를 준비해

독거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신은학 어부바봉사단장은 "매번 기쁜 얼굴로 도시락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에 작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열무김치가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익산 삼성동 새마을부녀회, 사랑 담은 반찬 전달

익산시 삼성동에 정성이 담긴 반찬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이 전해졌다. 삼성동은 16일 새마을부녀회(회장 전금숙)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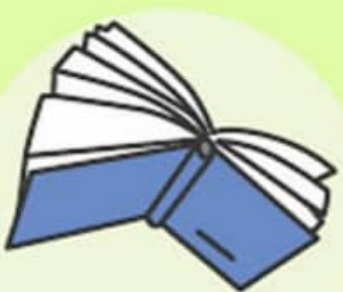
이날 삼성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불고기를 지역 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3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특히 반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전금숙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동 새마을부녀회는 반찬 나눔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과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一事一言〉



부처님 오신 날의 풍경회상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전국의 사찰은 연등으로 물든다. 형형색색의 등불 아래 수 많은 사람들이 경내를 찾고, 사찰은 모처럼 활기를 띤다. 그러나 축제의 열기 속에서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장면들이 있다.

대형 사찰의 범회개 열리는 대웅전 앞보다 공양간으로 향하는 양양출이 더 길게 늘어선 모습은 여전히 여색하다. 물론 절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일은 중요한 보시이다. 그러나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범회개보다 점심 공양이 더 큰 관심을 받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신행과 수행의 의미가 행사와 편의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범회에 참석한 지역 인사와 정치인을 소개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회 연단이 선거철이라 해도 정치적 발언의 공간으로 변하는 순간 종교가 지켜야 할 경계는 흐려진다. 불교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범회의 중심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사찰 운영 방식에도 고민이 필요하다. 대형 사찰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도로를 메우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한다. 인근 학

교 운동장이나 공공시설과 협력하여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신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다. 출가자가 줄어드는 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때 수많은 수행자를 길러냈던 강원과 승가 교육기관은 지원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은 암자는 물론 규모가 큰 사찰도 수행승 부족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계종은 은퇴출가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이 은퇴 후 수행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다. 과거에는 출가 연령과 긴 교육 과정 때문에 중장년층의 출가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길을 열어 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확대 자체가 아니라 수행과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있다.

문득 오래전 영화 '달마야 놀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향아리를 무었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스님들은 향아리 안에 사람

이 들어가는 해답을 내놓는다. 반면 조폭들은 향아리를 연못에 던져 물로 가득 채운다. 향아리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불교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듯하다. 불교는 과연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담장과 더 많은 규칙으로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가.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하는 길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불교는 얼마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연등의 불빛은 며칠 밤을 밝히고 있지만 그 빛이 비추어야 할 방향은 한 두달로 끝날 수 없다. 부처님 오신날은 축하의 날이면서 동시에 성찰의 날이어야 한다. 한국불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많은 건물을 짓는 일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일, 더 긴 담장을 세우는 일보다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 더 먼 거리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등의 숫자가 아니라 자비와 성찰의 깊이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박지원의 '정청래 퇴진' 요구, 여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깊이를 보여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집권 초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여당이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 계파 갈등과 당내 권력 경쟁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은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여당을 기대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에게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공천 논란 역시 민주당이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전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당 중심의 의사결정과 특정 계파 중심 정치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도부의 위기 인식이다. 지지를 하락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보내는 정치적 경고장이며 변화 요구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성찰과 쇄신보다 당권 경쟁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원 의원의 퇴진 요구가 반드시 정 대표 개인의 거취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 앞에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가깝다. 집권 여당은 권력을 유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조직이어야 한다.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채 내부 논리에만 갇혀 있다면 지지를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특정 인물 간의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보내는 불만과 경고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정치이며, 권력 연장이 아니라 쇄신이다. 여당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큰 변화로 답할 것이다.

▲오늘의시

푸른 6월 / 목 필균

내게도 푸르게 물든 강물이
저런 시퍼런 젊음이 있었던가
푸르게 물든 강물이
포르르 아카시아향기 말아 쥐고
깎듯이 길을 연다

푸른빛에 물든 세상
떠들썩한 세상이 온통 푸른빛이다
눈으로 코끝으로 혀끝으로
푸른 핏맥이 뛰며
펼칠 살아 숨 쉬는 6월 속으로
나도 따라 흐른다

흥건하게 번져오는 녹음이
산을 넘다가 풍덩 강에 빠진다
나도 따라 흐른다

푸르게 물든 강물

1946년 함양 출생. 춘천교육대학, 성신여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견습어린이들이 당선돼 데뷔했다.

|기고|

일이관지로 이어온 전북 쌀의 길, 신동진1



공자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뜻의 일이관지(一以貫之)를 강조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

전북 쌀의 상징과도 같은 '신동진1'과 그 후계자인 '신동진1'은 일이관지의 철학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식감과 농민의 자부심'이라는 본질을 지키며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온 과정이다.

1999년 보급된 신동진1은 전북 쌀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 품종이었다. 일반 쌀보다 알갱이가 1.3배 큰 고유한 특성은 신동진1을 단순한 곡물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다. 신동진1이 25년 넘게 왕좌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크고 맛있는 쌀'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온 '일(一)'에 있었다.

오랜 시간 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기후 변화로 인해 벼알이 익는 시기에 병해충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농가 소득에 위협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에 따라 다수확 품종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거셌다.

여기서 일이관지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단순히 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핵심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신동진1'이다.

'신동진1'은 관(貫)의 지혜, 즉 본질은 유지하고 성능은 강화한 품종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동진1의 DNA를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요구하는 특성을 갖춘 품종이다.

신동진1에서 신동진1로 이어지는 흐름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브랜드의 연속성이다. 수많은 신동진1이 있지만, 소비자가 기억하는 이름은 흔치 않다. 신동진1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버리지 않고 신동진1로 업

그레이드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며 기술적 진보를 이뤄낸 탁월한 선택이다. 둘째, 현장 중심의 혁신이다. 아무리 맛있는 쌀도 농민이 재배하기 힘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신동진1은 생산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도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이치로 꿰뚫는 해법이 되었다.

일이관지는 고집이 아니라 맥락이다. 25년 전 신동진1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품었던 '최고의 쌀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이제 신동진1을 통해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그 영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한 신동진1 시리즈의 여정, 이것이야말로 전북 농업이 나아가야 할 일이관지의 길이라 생각한다.

신동진1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맛의 가치와 더 강해진 생명력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소 이인석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별판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무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8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2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3회 고창 복분자·수박 축제

6월 19~21일 선운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에서 복분자, 수박, 장어를 테마로 한 '제23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싱그러운 신록으로 물든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선운산도립공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웅장한 풍경을 그려내고 경관이 빼어난 울창한 숲속에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 축제

무더운 여름에는 잘 먹어야 더위도 이겨낼 수 있다. 축제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단연 먹거리 아닐까.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3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에서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수박과 복분자를 구매하고 고창 수박을 푸짐하게 시식해볼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박 빨리 먹기, 장애물 3종경기, 맨손장어잡기가 진행된다. 또한 수박카빙대회도 진행하여 볼거리도 제공된다. 장어잡기 행사때 장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손질된 장어로 교환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어린이풀장 운영과 물총싸움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음악과 함께하는 물총 싸움과 어린이 풀장 운영하여 관광객과 한바탕 물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 물총을 쏘아대며, 때 이른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린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인기가수인 김다현, 강진, 금청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고창 동리창극단 시선공연 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K-POP 랜덤포 레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 택배 접수를 통해 집까지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창 수박'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에서는 해풍을 맞고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한 고창의 맛좋은 복분자와 수박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구입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이 마련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수박을 들고 가기 힘든 관광객들을 위해 현장 택배 접수도 진행된다. 수박 판매장 앞에서 택배 접수 부스를 운영하여 고창군이 인증하는 오리지널 고창 수박을 축제장 판매가격(택배비, 포장비 별도)에 구입할 수 있다.

▲여름 과일의 대명사 '고창 수박', 복된 분들이 드시는 '복분자', 대표 보양식 '풍천 장어'

전통적인 여름철 과일로 분류되는 고창 수박의 인기 비결은 '당도·식감·품질'이다. 무더운 여름 갈증 해소에 딱 맞는 제철 과일인 고창 수박의 향긋한 단맛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고창 수박은 지난해 지리적표시제에 정식 등록되어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명품수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창 복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복된 분들이 자시는(드시는) 음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고창의 복분자는 미세알이 풍부한 활도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콤 쌉쌀한 특유의 맛과 향에 비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 풍천 장어는 무더위 여름을 맞아 기력회복과 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예로부터 풍천장어는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탱탱해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축제와 함께 즐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고창의 이모저모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7개나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모여있는 고인돌 유적이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과 지주식감이 나오는 고창갯벌도 2021년 여름 세계자연유산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병바위, 운곡 람사르습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곳이 많다.

성큼 다가온 여름 더위 앞에 고창의 복분자, 수박으로 건강을 챙기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 둘러보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보자.

/고창=백종규 기자

